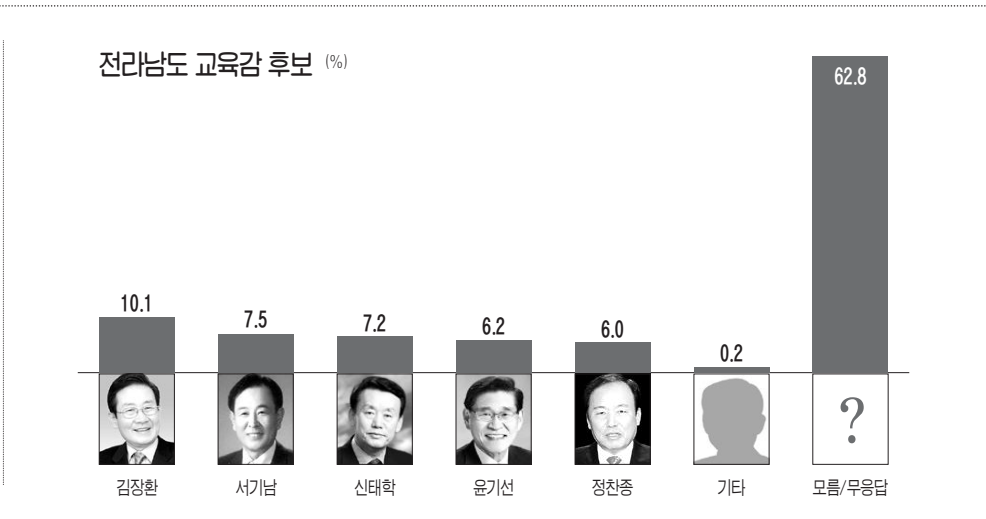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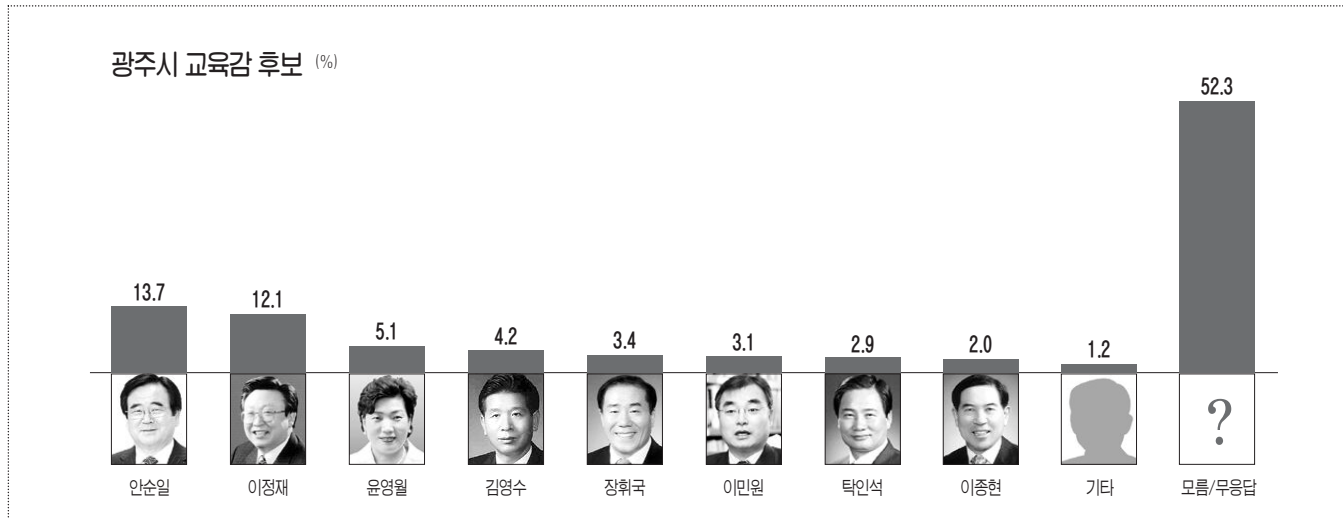


2010 지방선거 여론조사 < 교육감·구청장 >

광주시교육감 안순일·이정재 접전 전남도교육감 김장환 선두



광주시교육감 지지도

광주·전남 교육계를 이끌 시·도교육감을 위해 처음으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.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지만 정당 공천은 하지 않는다. 이에 따라 '현직 프리미엄'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.

광주시교육감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안순일 현 교육감(13.7%)과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(12.1%)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중이다. 윤영필 광주예고 교장(5.1%), 김영수 전 광주 삼도초 교장(4.2%)이 뒤를 이었고, 최근 시민후보로 등록한 장희국 광주시교육위원(3.4%)과 이민원 광주대 교수(3.1%) 순이었다. 탁인석 전 광주시교육위원은 2.9%, 이종현 무등중 교장은 2.0%였다.

광주시장 후보 지지도와 시교육감 후보 지지도를 교차분석한 결과, 박광태 시장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안순일 현 교육감을 지지했으며, 정동채 전 장관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이정재 전 총장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현직 안순일 교육감 지지층 박광태 시장 지지층과 겹쳐 전남 62% "잘 모르겠다" 부동산향배 따라 당락 가를듯 교육감 후보 덕목 도덕성-교육철학-경력-공약 順 꼽아

하지만 '잘 모르겠다'는 유보적 답변이 52.3%로 절반을 넘어서 이후 선거과정에서 부동층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.

또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의 경우, 정당 공천제가 아니지만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면서 지역 전통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기호(2번)를 누가 뽑느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.

은 지지율을 보였다. 이어 서기남 전남도교육위원 7.5%, 신태학 전 여수교육감 7.2%, 윤기선 전 전남교육연수원장 6.2%, 정찬종 전 무안교육감 6.0% 순이었다.

그러나 1위 김 전 교육감과 5위 정 전 교육감의 지지율 편차가 오차범위(±4.38%P) 내에 있어 혼전이 예상된다.

권역별로는 김 전 교육감(12.4%)과 신 전 교육감(10.5%)은 동부권에서, 윤 전 원장(7.0%)과 정 전 교육감(8.7%)은 서부권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다. 서 교육위원은 동·서부권에서 고른 지지율을 보였다.

전남도지사 후보 지지도와 교차 분석에서는 주승용 의원 지지층은 지역이 같은 신 전

교육장을 상대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. 박준영 지사와 이석형 군수는 도교육감 후보 지지도와 크게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. 또 민주당 지지층은 김 전 교육감(9.4%)과 신 전 교육감(9.0%)을 다른 후보들보다 상대적으로 선호했다.

하지만 지지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62.8%가 '잘 모르겠다'고 답변, 아직 어느 후보가 우세한지 단정짓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.

전남 38.6%)을 꼽았다. 교육 수장은 무엇보다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.

이어 '교육철학'(광주 32.0%, 전남 23.3%), '경력·경륜'(광주 12.4%, 전남 14.4%), '공약사항'(광주 7.4%, 전남 8.0%) 순으로 나타났다.

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도덕성을,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철학을 중시한 것으로 조사됐다.

차기 교육감 당선자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으로는 '사교육비 절감'(광주 43.6%, 전남 35.9%)을 들었다.

'성·학교 폭력 문제 해결'(광주 14.3%, 전남 19.4%), '학생 학업능력 향상'(광주 13.5%, 전남 12.3%), '교육 평준화'(광주 13.2%, 전남 10.4%), '학교시설 환경개선'(광주 10.0%, 전남 7.5%)이 뒤를 이었다.

'사교육비 절감'은 소득수준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바라고 있었고, '성·학교 폭력 문제 해결'은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
교육감 선택 기준

광주·전남 지역민들은 교육감 후보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'도덕성'(광주 42.0%,

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

광주 동구청장

'호남 정치 1번지' 광주 동구는 3선에 도전하는 유태명 현 동구청장이 23.9%로 앞서 나가고 있다.

이어 재선인 손재홍 광주시의원이 8.1%, 김강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7.2%,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출마설이 도는 하승완 전 보성군수는 5.8%의 지지율을 기록했다.

유태명 현 청장 탄탄한 조직력으로 독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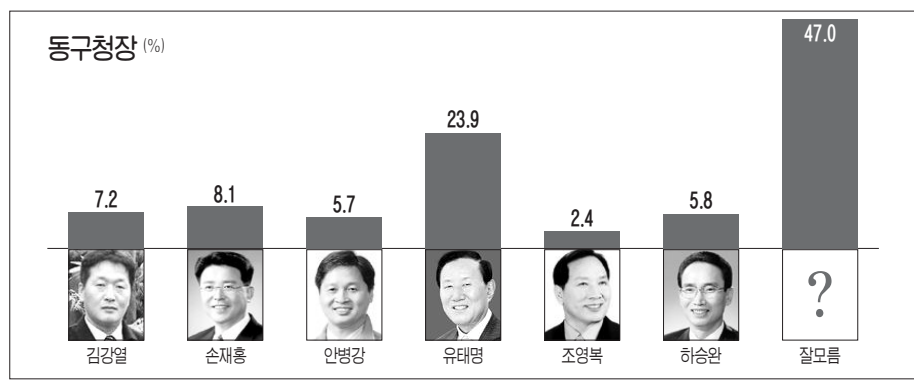
복했다.

민노당 안병장 전 보건의료노조 광주·전남본부장은 5.7%, 3선 구의원인 조영복 전 동구의회 의장은 2.4%였다.

유 청장의 독주는 탄탄한 조직력과 현직

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
그러나 '잘 모르겠다'는 응답이 47.0%로 나타나 상당수 유권자들이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.



광주 서구청장

전·현직 청장의 재대결이 관심사인 광주 서구는 전주인 현 서구청장이 19.8%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반면 김중식 전 청장은 9.2%로 전 청장보다 10.6%포인트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. 강기수 민노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15.2%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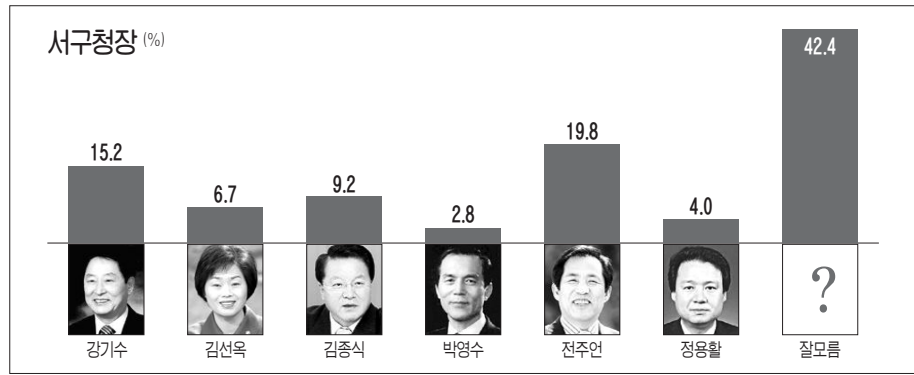
조영택 의원(광주 서구갑)계로 분류되는 김선옥 전 광주시의원(6.7%)과 정용환 현

전·현직 청장 재대결속 강기수 약진

나라당 서구갑 당협위원장(4.0%), 무소속 정동영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박영수 전 광주시의원(2.8%)이 뒤를 이었다.

한편 광주 자치구 중 서구지역이 한나라당(11.0%)에 가장 우호적인 것으로 조사됐

다. 또 지방의원들의 선거법 위반과 음주운전 사고 등 잦은 구설수에 시달린 서구는 후보자의 선택시 '정당 공천'(5.2%)이나 '정치적 경험'(1.4%)보다 '청렴·도덕성'(24.5%)을 중시했다.



광주 남구청장

광주 남구는 선거구도가 안갯속이다. 민주당 공천권 행사를 놓고 강은태 의원과 이윤정 남구위원장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. 여기에 황일봉 현 남구청장의 '3선 견제' 심리도 작용해 몰림 경쟁이 뜨겁다.

이번 조사에서 유동국 강은태국회의원 보좌관이 24.6%를 차지해 현직인 황일봉 청장(18.5%)을 6.1%차로 앞섰다. '현직 프리미엄'이 있는 단체장이 정치신인에 뒤진 것은 광주·전남지역에서 유일해 지역정가에서는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.

재선의 나중현 광주시의원(6.7%), 김화진 전 남구청장 후보(6.2%), 위성부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(4.9%), 전문성이 부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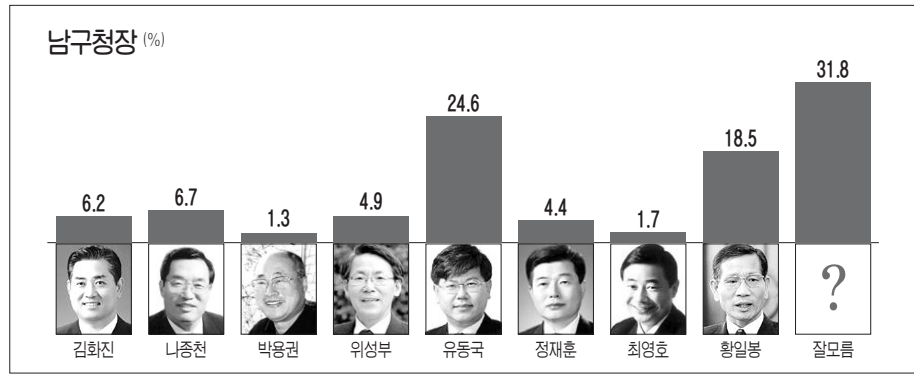
유동국, 광주·전남 유일 현직 앞질러

되고 있는 정재훈 동아병원장(4.4%), 최영호 전 광주시의원(1.7%), 박광원 전 남구청장(1.3%)이 뒤를 쫓고 있다.

남구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당공천(9.4%)이 후보 선택 기준에서 중요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되고 있는 정재훈 동아병원장(4.4%), 최영호 전 광주시의원(1.7%), 박광원 전 남구청장(1.3%)이 뒤를 쫓고 있다.

남구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당공천(9.4%)이 후보 선택 기준에서 중요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

광주 북구청장

송광운 현 북구청장이 28.8%의 지지율로 독주현상을 보이고 있다. 송 청장은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정통 행정관료로 행정의 전문성과 중앙정부의 두터운 인맥이 강점이라는 평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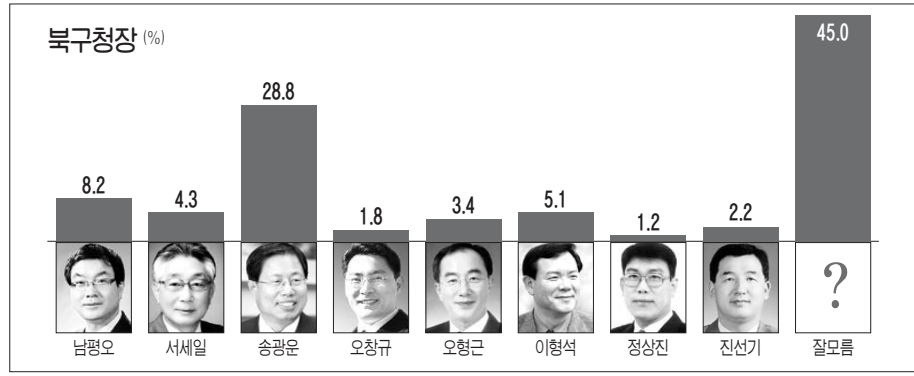
다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주당 공천여부가 주목된다. 공천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

28% 선두 송광운 민주 공천여부 주목

는 강기정·김재균 의원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소문이 돌면서 변수가 되고 있다.

남평요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 특별보좌관이 8.2%의 지지율을 보이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, 송 청장의 라이벌로 오르내리

던 이형석 전 광주시의회의장은 5.1%로 조사됐다. 서세일 한나라당 북갑 당협위원장 4.3%, 오형근 성형외과 원장 3.4%, 진선거 광주시의회의 부의장 2.2%, 정상진 전 북구의회의 의장 1.2% 순으로 조사됐다.



광주 광산구청장

전갑길 광산구청장이 오는 6일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'무주공산'을 차지하기 위한 후보들간 경쟁이 치열하다.

광산구는 최근 국민참여당에 입당한 송병태 전 광산구청장이 23.7%로 1위를 차지했고, 김종오 김대중평화센터 위원(18.1%)과 민형배 전 청와대 비서관(11.7%), 유재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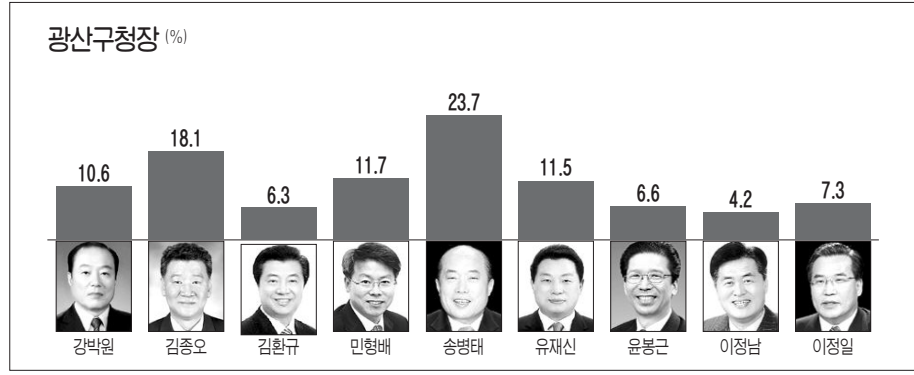
"무주공산 잡아라" 10% 이상 5명 각축

고 있다.

지역정가에서는 광산구청장을 역임해 인지도가 높은 송 전 청장이 1위를 차지했지만 민주당이 아닌 국민참여당 간판을 달고 있어 실제 선거전에서도 지지율이 지속될지 주목하고 있다.

고 있다.

지역정가에서는 광산구청장을 역임해 인지도가 높은 송 전 청장이 1위를 차지했지만 민주당이 아닌 국민참여당 간판을 달고 있어 실제 선거전에서도 지지율이 지속될지 주목하고 있다.



설문 방법

◇광역단체장·교육감
2010년 신년특집 지방선거 관련 광역단체장·교육감 여론조사는 광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, 구랍 28일 실시했다.

광주·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가운데 광주·전남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와 전문 면접원에 의한 전화 여론조사방식(CATI 시스템)을 사용했다. 각 지역별 인구수 비례에 따라 성별·연령별로 쿼터를 할당한 뒤 전산화된 전화번호 인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, 광주·전남에서 각각 500명씩을 유효표본으로 삼았다. 응답률은 광주 18.3%, 전남 24.8%였다.

응답자의 특성은 광주지역의 경우, 동구 47명(9.4%), 서구 106명(21.2%), 남구 75명(15.0%), 북구 168명(33.6%), 광산구 104명(20.8%)이었고, 성별은 남자 243명(48.6%), 여자 257명(51.4%)이었다. 연령별로는 19~29세 111명(22.2%), 30대 117명(23.4%), 40대 115명(23.0%), 50대 75명(15.0%), 60대 이상 82명(16.4%)이었다.

전남지역은 동부권 270명(54.0%), 서부권 230명(46.0%)이었고, 성별은 남자 247명(49.4%), 여자 253명(50.6%)이었다. 연령별로는 19~29세 85명(17.0%), 30대 88명(17.6%), 40대 101명(20.2%), 50대 80명(16.0%), 60대 이상 146명(29.2%)이었다.

이번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4.38%포인트다.

기초단체장

광주·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여론조사는 광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에 의뢰, 구랍 26~27일 이틀간 실시했다.

광주·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가운데 각 기초자치단체별 무작위 추출해 ARS를 활용한 자동응답방식(CTS)을 사용했다. 18대 총선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뒤 보정했다. 각 기초자치단체 유효표본 수와 신뢰도는 표와 같다.

광주 유효표본	표본오차	전남 유효표본	표본오차
동구 567	±4.11%P	구례 358	±5.17%P
남구 528	±4.32%P	고흥 532	±4.24%P
북구 500	±4.38%P	보성 416	±4.80%P
광산 507	±4.35%P	장흥 414	±4.81%P
전남 유효표본	표본오차	간성 366	±5.19%P
목포 518	±4.30%P	완도 514	±4.32%P
여수 542	±4.20%P	해남 466	±4.53%P
순천 512	±4.32%P	진도 350	±5.23%P
나주 563	±4.12%P	영암 462	±4.55%P
광양 543	±4.20%P	무안 482	±4.46%P
담양 452	±4.60%P	영광 423	±4.76%P
장성 434	±4.70%P	함평 437	±4.68%P
곡성 371	±5.08%P	신안 397	±4.91%P

(한·95% 신뢰수준)

설문내용

- 다음은 내년 6월에 치러질 ○○시장/○○군수/○○구청장 후보로 가려지는 인물들입니다.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차기 ○○구청장으로 누구를 가장 지지하시겠습니까?
 - 선생님께서 내년 ○○시장/○○군수/○○구청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, 국민참여당 후보, 민노당·진보신당 등의 진보정당 후보 그리고 무소속 후보가 나온다면 어느 후보를 지지하시겠습니까?
 - 선생님께서 내년 ○○시장/○○군수/○○구청장 후보자 투표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?
- ①정당공천 ②후보자의 자질 ③정책과 공약 ④정치적 경험 ⑤청렴과 도덕 ⑥아직 모르겠다